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모두 발언

2023. 5. 23. (화) 09:00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김주현 위원장님, 손병두 이사장님, 양석조 검사장님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발생한 주가 급락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본시장의 투자 환경을

건전하게 재정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Ⅱ 최근 주가 급락 사태에 대한 입장

저는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식리딩방,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와
불법 공매도 엄중 조치,
중요 사건 우선 처리 프로세스 정립 등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공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함과 동시에,

업무처리과정에서
부족한 사항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Ⅲ 향후 조사업무 개선 방향

자본시장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건전한 경쟁환경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와 조직 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감독원이 보유한
다른 여러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 조직 체계를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全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제보 관련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인 조사 초기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그리고 남부지점까지
조사·심리·수사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있어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유관기관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V 맺음말

정부는 현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외형을 넓히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자본시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내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조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